

손흥민, FIFA 선정 '올해 최고의 골' ... 한국 선수 최초



▲ 손흥민이 한국 선수 최초로 FIFA 선정 '올해 최고의 골'을 수상했다. 사진=타운뉴스DB

손흥민(토트넘)이 지난 시즌 번리를 상대로 뽑아낸 '70m 원더골'로 국제축구연맹(FIFA) 푸슈카시상을 받았다. 푸슈카시상 수상은 한국 선수로는 처음이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다.

18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손흥민은 전날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FIFA 본부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드 2020' 시상식에서 푸슈카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드'는 한 해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및 감독 등을 뽑아 시상하는 FIFA의 연례행사다. 푸슈카시상은 헝가리 축구의 전설인 고(故) 페렌츠 푸슈카시의 이름을 따 2009년 제정한 상이

다. 대회,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한 해 동안 축구 경기에서 나온 골 중 최고를 가려 시상한다.

한국 선수가 푸슈카시상을 받은 것은 손흥민이 처음이다. 아시아 선수로는 2016년 모하메드 파이즈 수브리(말레이시아)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수상이다.

히오르히안 데 아라스카에타(플라멩구), 루이스 수아레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경쟁한 손흥민은 팬(50%)과 축구전문가 패널(50%) 투표를 합산한 점수에서 24점(전문가 13점·팬 11점)을 얻어 각각 22점과 20점에 그친 아라스카에타와 수아레스를 제쳤다.

세계 최고 득점으로 뽑힌 장면은 지난해 12월 8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과 번리의 2019~2020시즌 정규리그 16라운드 경기에서 나온 '70m 질주 원더골'이다. 당시 토트넘 진영 페

널티 지역 부근에서 불을 잡은 손흥민은 무려 70m가 넘는 폭풍 드리블을 펼치며 수비수 6명을 엄청난 스피드로 따돌리고 득점에 성공했다.

이 장면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당시 디에고 마라도나(아르헨티나)가 중앙선 부근에서 단독 드리블로 골을 터뜨렸던 장면을 뛰어넘을 만큼 환상적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이 골은 EPL '12월의 골'을 시작으로 영국 공영방송 BBC '올해의 골', 영국 스포츠매체 디애슬레틱 '올해의 골'에 이어 EPL 사무국이 선정하는 2019~2020시즌 '올해의 골' 등에 오르며 최고 골로 인정받았다.

FIFA는 "자신의 진영에서 반대편 골네트를 흔들 때까지 손흥민에게는 황홀한 12초가 전부였다."면서 "페이스, 파워, 끈기, 간결한 마무리 등 모든 것을 보여준 골로 토트넘 팬은 그들의 한국인 스타와 사랑에 빠지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아림, 출전 자격 확대로 첫 참가한 'US오픈' 우승

김아림(25)이 처음으로 출전한 미국 메이저 골프대회 US여자오픈에서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준우승은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고진영(25)이 차지하며 한국 남자들이 우승과 준우승을 싹쓸이했다.

1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아림은 이틀 전 텍사스주 휴스턴 챔피언스 골프클럽 사이프러스크리크코스(파71·6731야드)에서 올해 마지막 메이저 대회로 열린 제75회 US여자오픈에서 최종 합계 3언더파 281타로 리더보드 가장 높은 곳에 이름을 올리며 우승 상금 100만 달러를 거머쥐었다. 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5년, US여자오픈 10년 출전권도 획득했다.

김아림의 우승 이력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통산 2승이 전부다. 코

로나19 대우행으로 지역 예선을 진행하지 못한 주관 단체 미국골프협회(USGA)가 US여자오픈 출전 자격을 확대하면서 찾아온 기회를 김아림은 처음으로 출전한 여자골프 최고 권위의 메이저 대회를 우승으로 장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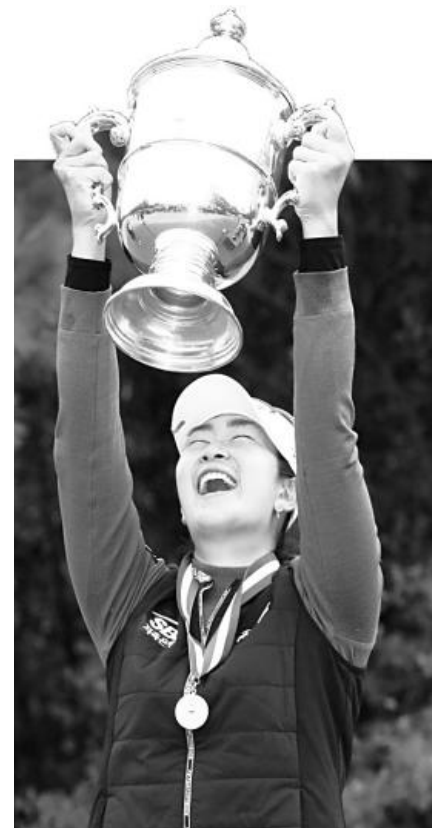
한국 선수의 US여자오픈 우승은 지난해 이정은(24)에 이어 2년 연속인 동시에 통산 11번째다. 그중 박인비(32)는 유일하게 두 차례 우승을 달성했다. 김아림은 US여자오픈을 정복한 10번째 한국 선수가 됐다.

김아림은 시부노에게 5타 뒤처진 공동 9위에서 4라운드를 출발했지만 특유의 장타력을 앞세워 역전 드라마를 펼쳤다. 지금까지 US여자오픈에서 5타차를 뒤집은 우승자는 6명뿐이다. 그 이상의 간격을 추월한 사례는 없다.

김아림은 경기를 마친 뒤 "우승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영광스럽다. 공격적으로 치겠다는 각오로 나왔다. 생각대로 됐다."며 "지금의 시국에 경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 내 경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좋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아림은 이번 우승으로 LPGA 투어 진출 길이 열렸지만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충분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고진영은 최종 합계 2언더파 282타를 기록해 준우승했다. 고진영은 코로나19 대우행으로 지난달 중순에야 LPGA 투어에 복귀했다.

▶ 김아림이 우승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타운뉴스DB



광고 그래픽 디자이너 모집

- 모집 인원 풀타임 디자이너 1명
- 제출 서류 이력서, 포트폴리오 각 1부
- 서류 제출 방법 info@townnewsusa.com 이메일 제출
- 기타 서류 심사 후 인터뷰 일정은 개인별 통보함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404-0027 (Rosecrans Ave + Valley View Ave)